

우리학교에 캄보디아 선생님이 오셨어요

캄보디아 중학교 교사 단·초교 교사 케이오씨
한국 파견 군산 소룡초 학생들 대상 수업 진행



“쭘 리업 쭘어(캄보디아어 안녕하세요!)”

군산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소룡초등학교(교장 지혜란) 학생들이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생님께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다.

캄보디아 중학교 영어교사 단(38, 여)씨와 초등학교 교사 케이오(36, 여)씨는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한국으로 파견돼 소룡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캄보디아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2주 동안 적응 교육을 받고 소룡초로 온 이들은 1주일 가량 참관 수업을 거친 뒤 4월 초순부터 학생들에게 캄보디아의 전통놀이와 국기, 문화재 등을 알려주고 있다. 10년 전 한국에 온 캄보디아 출신 김다정 통역사가 함께 하고 있어서 낯선 한국 생활도 두렵지 않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외국인 선생님이로부터 처음으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고 있다. 책에서만 보았던 앙코르와 사원에 대해 묻기도 하고 전통 스카프를 두르고 수줍게 웃기도 한다. 6학년 한 학생은 멀리서 우리 학교까지 와주신 선생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끄 루병리은, 어쿤(캄보디아어 선생님, 감사합니다)”이라고 말해보았다고 한다.

단 교사와 케이오 교사는 한국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활기차고, 집중력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 캄보디아와 달리 교실의 IT 인프라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 부럽다고 했다.

문영권 소룡초 교사는 “다른 나라 교사교류를 통해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학생들이 직접 접하고 느낄 수 있어서 좋고, 다른 학교에도 적극 권하고 싶다”며 뿌듯함을 드러냈다.

소룡초는 전북도교육청 다문화이해교육정책인 ‘다꿈사랑학교’를 3년째 운영 중이며, 군산지역 다문화교육의 중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교생 824명 중 40명인 다문화가정 학생과 함께 ‘저녁이 있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저녁밥을 같이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중언어 동아리 ‘캄차사랑(캄보디아 차이나 사랑)’도 운영하고 있다.

▶ 캄보디아 교사들이 최근 군산 소룡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도교육청, 다문화 대상국가 교육교류

도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년도보다 496명 증가한 6,066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78%에 달한다(2017.4.1. 기준).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73.26%(4,437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이 15.31%(927명), 고등학생이 11.43%(692명) 순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교육을 위해 ▲다꿈준비학교(5교) 운영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편?입학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다꿈교육특구(순창, 장수, 임실, 진안)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다꿈기움학교(17교) ▲다꿈기움유치원(6원) ▲다꿈사랑방학교(53교) ▲다꿈사랑방유치원(24원) ▲다문화 연구학교(1교) ▲문화·인권감수성교육 ▲다꿈교육주간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교류, 교원연수, 워크숍, 연구회활동 등 사례 나눔을 통해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는 2012년 필리핀, 몽골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7개국과 진행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2015년부터 참여해 현재까지 22명의 교사가 초청됐고, 10명의 교사가 파견됐거나 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베트남 교사 2명이 파견돼 수업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장수고등학교에 태국 교사 2명이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은솔 군산구암초등학교 교사가 베트남으로 파견활동을 갈 계획이며, 파견교사를 추가 선정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반



선유도(위)와 한옥마을(아래) 문화체험.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원보급 5,733,677,999
...	
참여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단체)

홍보대사 류수영